



배포일시	2022. 6. 14.(화)	담당부서	고령사회정책과장 전은옥	062)613-3060
			노인시설지원팀장 강은숙	062)613-3080
자료구성	총 2쪽(사진 있음)	보도일시	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광주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

- 14일, 기념식·문화공연·유공자 시상 등

- 광주광역시는 14일 5·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‘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’ 기념행사를 개최했다.
- 이번 기념행사는 이달주 복지건강국장, 신동이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, 조호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, 노인인권 증진 유공자,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과 노인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시상, 유공자 표창, 광주시 노인보호정책 및 현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.
- 이날 유공자 표창에는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 등 7명이 시장상을 받고,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최한 노인인식개선 그림공모전에서 입상한 총 9명의 어린이가 상장을 받았다.
- 이달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기념식에서 “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확산되고 더 나아가 노인학대가 근절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학대 없는 안전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한편,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보고에 따르면, 지난해 광주시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472건으로 2020년(457건) 대비 3.28% 증가했다. 이 가운데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219건으로 2020년(263건)보다는 16.7%가 감소한 상황이다.
- 광주시는 노인학대 사전예방 및 학대 감소를 위해 2004년부터 노인 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쉼터를 각각 1곳 운영하고, 학대피해 노인에게는 상담서비스, 복지서비스, 법률서비스, 의료서비스, 보호서비스,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. 또한, 노인인권 교육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도 연 200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.
- 이와 함께,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시청 1층 시민숲에서 노인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과 그림 등을 선보이는 ‘노인 인식 개선 작품전시회’를 개최하고 있다. 이번 전시회에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.
- ▲ 노인학대 예방의 날 :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15일로 지정(2016년) (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)
- ▲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(INPEA)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6월15일을 '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(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)'로 정함
- ▲ 2021년 광주시 노인학대 현황
  - (학대유형) 신체적(46.9%), 정서적(37.0%), 방임(11.5%), 경제적 학대(3.8%) 순
  - (발생 장소) 가정내 학대(90.4%), 병원(3.7%), 이용시설(3.2%), 생활시설(1.8%) 순
  - (학대행위자) 배우자(50.5%), 아들(25.5%), 딸(6.4), 기관\*(5.5%)순
- ▲ 별첨 : 사진